

SK이노베이션의 고분자 연구개발 현황 (Polymer R&D in SK Innovation)

이영근[†]

SK이노베이션

(lyk@sk.com[†])

SK이노베이션은 1962년 대한석유공사로 출범하여 정유를 시작으로 윤활유, 방향족, Naphtha 분해시설 순서로 Downstream 확장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1990년 PE/PP 중심의 Polymer 공장 가동 개시 및 증설을 통해 범용 Polymer 시장에 진출하였음. 이후 EPDM 등 합성고무와 Polymer Compounding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최근 2014년에는 고성능 Metallocene Polyethylene 제품 Nexlene[®]을 독자 개발하여 상업화함으로써 고부가 제품으로 범용 Polyme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Specialty Polymer 소재로의 사업 영역 확장도 함께 추진하여, 2000년대 이후 Li-ion battery용 분리막, 연성회로기판 소재, 광학 필름 등 고부가 정보전자 소재의 독자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하였으며, 현재에도 점·접착 소재, 반도체용 소재, 투명 유연소재, 경량화 소재 분야 등으로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금번 발표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polymer 사업화 History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함.